

# 기아 LA 오토쇼서 'EV9 GT' 공개...북미 시장 공략 강화

### 전·후륜 모터로 최대 508마력...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 '더 뉴 EV6' '더 뉴 스포티지' 다양한 신차 함께 선보여

기아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A 오토쇼를 통해 '더 기아 EV9 GT' (이하 EV9 GT)를 처음 선보였다.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되는 EV9 GT는 160kW급의 전륜 모터와 270kW급 후륜 모터로 최고 출력 508마력(ps)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EV9의 고성능 트림인 'GT-라인' (384마력)보다 124마력 높은 수준이다.

EV9 GT는 기아 SUV 중 처음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ECS)을 장착해 안정적인 승차감과 핸들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전방 카메라로 인식한 노면 정보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쇼크 업소버(충격 흡수 장치)의 감쇠력을 최적으로 제어한다.

또 EV9 GT는 기아 3열 SUV 최초로 탑재되는 전자식 차동제한장치(e-LSD)로 좌우 바퀴 구동력을 제어해 안정적인 곡선 주행을 돕는다.

디자인적으로는 GT 전용 21인치 알로이 휠과 네온 색상의 캘리퍼(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장치)

가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스티어링 휠 위의 GT 버튼을 누르면 차별화된 주행 감성을 느껴볼 수 있다고 기아는 전했다.

스티븐 센터 기아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EV9이 가진 매력 요소를 포함하는 동시에 드라이빙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운전의 재미 요소를 크게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기아는 LA 오토쇼에서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EV6'와 '더 뉴 스포티지'를 함께 전시했다. 둘 다 북미 첫 공개다. '2023 북미 올해의 차' SUV 부문의 정상에 오르며 호평 받았던 EV6는 상품성을 개선해 내년 봄부터 북미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다.

미국 내 판매 1위 모델인 스포티지도 5세대 스포티지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스포티지'로 북미 시장을 두드린다. 올 10월까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65만3078대 중 스포티지는 20.3% (13만2439대)가 팔린 '베스트 셀링카'다.

더 뉴 스포티지는 북미시장에 ▲2.5 가솔린 ▲



기아 미국법인 관계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A 오토쇼 '더 뉴 스포티지' (북미시장)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플래그십 전동화 SUV 'EV9'.



기아 미국법인 관계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A 오토쇼 '더 뉴 스포티지' (북미시장)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플래그십 전동화 SUV 'EV9'.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HEV) ▲1.6 가솔린 터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라인업으로 2025년 2분기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기아는 이번 오토쇼에 2239㎡ 규모 전시장을 마련해 총 26대를 전시했다.

그중 '더 기아 K4'는 이날 발표된 '2025 북미 올해의 차' 세단 부문 최종 후보에 포함됐다. 최종 수상 차량은 2025년 1월 10일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발표된다. 기아는 앞서 텔루라이드(2020년), EV6(2023년), EV9(2024년)이 '북미 올해의 차'

SUV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밖에도 K5와 니로, 셀토스, 텔루라이드, 카니발, 콘셉트카 EV9 ADVNTR(어드벤처)와 PV5 WKNDR(위켄더) 등 26대의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 드라이버 부문 첫 우승

### 정의선 회장, 도요타 회장과 만남

현대차가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WRC)'에서 드라이버 부문 첫 우승을 차지했다.

제조사 부문에서는 마지막에 도요타에 역전당하며 드라이버와 제조사 부문 첫 통합우승은 어렵게 놓쳤다.

현대차는 25일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일본 아지치현과 기후현에서 열린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WRC)' 일본 랠리 마지막 라운드에서 드라이버 부문 우승컵을 안았다"고 밝혔다.

'i20 N 랠리1 하이브리드' 경주차로 출전한 현대 월드랠리팀 티에리 누빌 선수는 총 242점을 거둬 팀과 자신 모두 첫 우승을 거뒀다.

1988년 벨기에 태생인 누빌은 2013년 현대 월드랠리팀에 합류해 WRC에서 총 21회나 랠리 우승을 거뒀지만, 대회 종합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24 WRC 첫 번째 라운드인 몬테카를로 랠리와 열 번째 라운드인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랠리에서 우승하며 시즌 내내 드라이버 순위 1위를 달렸다.

다만 현대 월드랠리팀은 제조사 부문에서는 558점을 얻어 561점의 도요타 가주 레이싱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현대 월드랠리팀은 제조사 부문에서도 시즌 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 WRC 일본 랠리 후 드라이버 우승을 차지한 선수 및 임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내 1위를 놓치지 않았으나 이날 열린 일본 랠리에서 마지막 경기 17라운드에서 오토 타나 선수가 차량 파손으로 기권하면서 도요타에 역전당했다.

제조사 부문 우승은 각 랠리 당 상위 2명의 점수를 누적 합산해 결정된다.

만약 제조사 부문까지 우승했다면 현대차는 첫

통합 우승을 거둘 수 있었다. 도요타 가주 레이싱은 이번 우승으로 제조사 부문 4연패를 기록했다.

한편, 정의선 현대차그룹은 이날 WRC 경기가 열리는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을 방문해 도요타자동차그룹 도요다 아키오 회장과 한달만에 재회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금호타이어 NBA 애틀랜타 호크스 3년 후원



금호타이어가 25일 "미국프로농구협회(NBA) '애틀랜타 호크스'팀과 후원 계약을 맺고 오는 2027년까지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 애틀랜타 호크스 팀은 금호타이어가 생산공장 과 판매법인, 물류창고 2곳 등을 둔 미국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NBA 팀이다. 2007-2008 시즌부터 꾸준히 동부 플레이오프권에서 플레이오프 49회 진출(우승 1회)을 이룬 바 있다. 트레이 영, 보그 단 보그다노비치 등 국내 팬에게도 익숙한 선수들이 속해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을 통해 애틀랜타 호크스 팀의 홈경기장인 '스테이트 팜 아레나' 내 코트 옆 전광판, 골대 등에 브랜드를 노출한다. 또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공동 이벤트를 진행하고, 지역 방송 매체 등을 통한 광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남화 북미본부장 전무는 "전략시장인 조지아주 지역 사회 내의 탄탄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후원을 결정했다"며 "스포츠의 승리에 대한 열정과 스포츠맨십이 금호타이어의 에너지와 결부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 투싼 연식 변경 모델 '2025 투싼' 출시

현대차가 25일 "중형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투싼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5 투싼'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트림에 실내 소화가기 추가됐고 모던 트림에는 에어로 타입 와이퍼와 2열 에어 벤트(송풍구)가 기본으로 장착됐다.

프리미엄 트림에는 2열 시트를 트렁크에서 손쉽게 접을 수 있는 폴딩 레버를 비롯해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새롭게

적용됐다.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은 주차 보조와 프리미엄 음향 옵션을 결합한 할인 패키지가 출시됐다.

모던,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판매 가격은 이전과 같고 프리미엄 트림은 20만원 인상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한 가운데 현장에서 수렴한 고객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해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5 투싼' 내부 모습.

## 기아차 봉사단, 특수아동과 함께하는 연주회

### 관객 300여명 공연장 찾아 성황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25일 "지난 22일 제13회 초특급 아이돌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기아 광주 생기3실 임직원 봉사단이 함께했다. <사진> '초등학교 특수학급(교) 아이들의 즐거운 합창단'의 졸업말인 '초특급 아이돌 합창단'은 특수아동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광주시교육청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이날 공연은 초특급 아이돌 합창단과 팝페라그룹 '리샘플로르', 클래식 연주팀 '무채양상' 그리고 기아 광주 임직원 봉사단이 무대에 올랐다.

300여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특히 연주 마지막 무대로 초특급 아이돌 합창단과 기아 임직원 봉사단, 전체 출연진이 함께 합창하면서 피날레를 장식했다.

기아 광주 임직원 봉사단과 초특급 아이돌 합창단은 2014년부터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임직원과 아이들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기아 광주 임직원 봉사단은 앞으로도 진정성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 제네시스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 고장·이상 현상 감지 안내 서비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사진)는 25일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로 차량 운행 중 고장이나 이상 현상을 먼저 파악하고 고객에게 안내하는 '선제 케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 고장을 감지하는 '안심 케어'와 고장 이외 단순 운행 관련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케어'로 구성됐다. 차량 상태 관련 안내는

마이 제네시스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문자를 통해 전달된다. 필요한 경우 안내 전화와 함께 긴급 출동, 견인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제공된다.

제네시스는 내년부터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